

제9과 자연과 인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인간이 살 만한 조건과 자연 환경이 갖추어지기 시작한 것은 수 천만 년 전 무렵부터였다.

인류는 빠르지도 않고 힘도 약했지만 두 손을 사용하여 도구를 만들고 노동을 함으로써 자연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언어가 생겨나고, 지능이 발달하여 오늘날과 같은 문화를 창조할 수 있었다.

인류를 위협할 만한 다른 경쟁자는 없었다. 인류는 항상 승리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었다. 그 때 문인지 인간은 지구 상에 인간만한 존재는 없고, 다른 모든 것들은 인간을 위해서 희생되어도 좋다는 위험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인류는 옛날에 자연의 지배를 받았지만 나중에는 자연을 지배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 인류는 언제부터인가 대자연이 어머니와 같은 존재임을 잊어버린 것

이다. 우리는 자연의 품 안에서 자연이 주는 젖을 먹고 사는 어린아이들과 같다. 그런데 인류는 그 자연과 싸워 이기려고 했다. 자연은 싸워 이길 대상이 아니다. 어머니가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인가? 싸워서 이긴들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는가[9]

오늘날 인류에게 가장 큰 문제는 환경 문제이다. 땅과 물이 오염되고 공기가 더러워졌다. 개발을 한다고 말하면서 자연의 정화 기능을 파괴시켜 놓았다[10]

접시를 깨끗이 닦고, 몸을 씻고, 옷을 빨기 위해 강물을 더럽힌다. 다시 거기에 약을 넣고 정수를 해서 마신다[11] 환경은 환경대로 오염되고, 일은 일대로 많다[12]

썩지 않는 비닐과 플라스틱을 만들었다고 좋아했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처리할 수 없어 골치가 아프다[13] 태우면 독가스를 마셔야 되고, 땅에 묻어도 썩지 않고 양도 너무 많다.

옛날에는 이런 걱정을 아무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연이 알아서 다 해주었기 때문이다.[14] 이제 인류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제까지는 몰라서 그랬다고 치더라도[15] 앞으로는 달라져야 한다. 눈앞의 이익과 편리에만 집착하지 말고 더 길게 보고 행동할 줄 알아야 인류에게 희망이 있다.

단어 지구 земной шар; Земля 갖추다 подготовить, заиметь; обеспечиваться
 천만 десять миллионов 무렵 примерно в то время, когда 도구 орудие, ин-
 струмент, прибор 노동 труд, работа 노동(을) 하다 работать, трудиться
 살아남다 выживать 지능 интеллект 발달 развитие, прогресс 발달(을)
 하다 развиваться 창조 творчество 창조(를) 하다 творить, созидать 경
 쟁자 конкурент, соперник ~ 상 на 지배 правление, господство 지배(를)
 받다 находиться под правлением (господством) 지배(를) 하다 править,
 господствовать 대자연 природа 대상 объект 정화 очищение, очистка
 기능 функция 파괴 разрушение; ломка; подрыв 파괴(를) 시키다
 разрушать; ломать; подрывать 접시 тарелка 더럽히다 пачкать, загрязнять;
 осквернять 정수 чистая вода; очистка (фильтрование) воды 정수(를) 하다
 очищать (фильтровать) воду 비닐 полиэтилен 플라스틱 пластмасса 골치
 простореч. голова; мозг 골치(가) 아프다 болеть (о голове); быть
 досаждающим (неприятным) 독 яд, отрава 가스 газ 왜냐하면 ~ 때문이
 다 потому что; из-за того, что 눈앞 перед глазами 이익 выгода, прибыль
 편리 удобства, комфорт 집착 пристрастие, приверженность; упорство 집
 착(을) 하다 привязаться; упорствовать; настаивать 희망 надежда; желание

1 수천만 년 전 무렵 около нескольких десятков миллионов лет назад

✓ 수천 명의 사람들 несколько тысяч человек
 수백 개의 풍선 несколько сотен воздушных шариков

2 그러는(=그렇게 하는) 사이에 В период, когда это происходило
 ~는 사이에 в период, когда (делают что-л.)

3 그 때문인지 и, может быть, поэтому

■ ~는/(으)ㄴ지 «то ли»

Также используется в форме «~는/(으)ㄴ가».

● 영화가 무슨 일이 있는지 오늘 안
 왔어요.

То ли у Ёнхи что-то случилось,
 почему-то она не пришла.

● 밖에 누가 왔는지 소리가 나요.

То ли кто-то пришёл, снаружи
 доносятся звуки.

● 아이가 감기에 들었는지 기침을 하네요.	То ли ребёнок простудился, почему-то кашляет.
● 점심 시간이기 때문인가 전화를 안 받는데요.	То ли из-за того, что обеденное время, почему-то не берут трубку.

✓ 어찌나/얼마나 ~는/(으)니지 так/настолько..., что

● 아이들이 어찌나 떠드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Дети так шумели, что я вообще ничего не соображал.
● 그 사람이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가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Этот человек так хорошо говорит по-корейски, что я решил, что он кореец.
● 방이 얼마나 추운지 얼어 죽을 뻔했어요.	В комнате так холодно, что чуть не замёрз насмерть.

단어 얼다 замерзать, застывать, леденеть

4 지구 상에 인간만한 존재는 없고 на планете нет существа, которое могло бы сравниться с человеком

■ ~만하다 «подобный; такой же, величиной с»

● 방이 꼭 손바닥만해요.	Комната точь-в-точь размером с ладонь.
● 이만한 수박을 하나 사 오세요.	Купите вот такой (такого размера) арбуз.
● 그 사람이 키가 저만해요? - 너보다 약간 작지.	- У него такой же рост, как у меня? - Немного пониже тебя.
● 우리 오빠만한 남자도 드물어요.	Такие мужчины, как мой старший брат, вообще редкость.

단어 꼭 точно, как раз, аккуратно 손바닥 ладонь 드물다 редкий

✓ ~만 못하다 «не дотягивает до уровня ...»

● 동생이 형만 못해요.	Младший не может тягаться со старшим.
● 그건 짐승만도 못한 짓이에요.	Это даже выходкой животного нельзя назвать.

ㄱ 싸워서 이긴들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는가? Пусть мы будем сражаться и победим, что хорошего будет в этом?

■ ~(으)ㄴ들 «пусть ..., но»

- | | |
|--------------------------------|---|
| ● 우리가 간들 아주 가는 것도 아닌 데 울지 마세요. | Пусть мы уходим, но ведь не насовсем, так что не плачьте. |
| ● 그 사람이 돈이 있은들 얼마나 있겠어요? | Ну пусть есть у него деньги, сколько их у него? |
| ● 그분에게 부탁한들 무슨 수가 있겠어요? | Ну пусть Вы его попросите, разве это выход? |

단어 아주 совсем, навсегда 수 возможность; способ

✓ С существительными используется «~(이)ㄴ들».

- | | |
|----------------------|--|
| ● 난들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냐? | Я что, по-твоему, сделал бы так по собственной воле? |
| ● 선생님인들 괴롭지 않으시겠어요? | А что, думаете, учителю от этого не горько? |

✓ ~았[었,였]던들 (было бы лучше,) если бы
Оттенок сожаления.

- | | |
|---------------------------------------|---|
| ● 공부를 조금만 더 열심히 했던들 시험에 떨어지지 않는했을 텐데. | Если бы я хоть чуть-чуть усерднее занимался, я бы не провалился на экзаменах. |
| ● 조금만 더 잘해 주었던들 선미가 그렇게 빠치지는 않았을 것을. | Если бы я хоть чуть-чуть больше уделял внимания Сонми, она бы так не обиделась. |

단어 괴롭다 мучительный 시험에 떨어지다 провалиться на экзаменах
잘해 주다 угождать, радовать, уделять внимание, ухаживать

ㄴ 자연의 정화 기능을 파괴시켜 놓았다. нарушили функцию самоочищения природы

■ ~아[어,여] 놓다/두다 Продолжение результата действия

Указывает на то, что действие совершено, а результат этого действия остаётся.

● 창문을 열어 놓으면 모기가 들어 오니까 닫아 놓으세요.

Если оставить окно раскрытым, то налетят комары, закройте, пожалуйста.

● 누가 여기 불 켜 놔지(=놓았지)?

Кто это свет здесь включил?

● 모자를 어디다(=어디에다) 벗어 놓았는지[두었는지] 모르겠다.

Ума не приложу, куда я подевал шапку.

● 4시에 출발할 테니까 지금 잠을 좀 자 두세요.

Мы отправимся в 4 часа, поэтому сейчас поспите немножко.

단어 모기 комар

㉓ 거기에 약을 넣고 정수를 해서 마신다. Пьют, добавляя туда химикаты, фильтруя.

✓ Слово «약», помимо своего основного значения «лекарство», также может означать «химическое вещество», «ядохимикат», «удобрение», «батарея» и т.д.

㉔ 환경은 환경대로 오염되고, 일은 일대로 많다. Вроде бы и природа загрязняется, а дел от этого только прибавляется.

■ ~은/는 ~대로 «по-своему; вроде бы и ..., а всё равно ...»

● 작은 것들은 작은 것들대로 따로 모아 두세요.

Мелкие вещи собирайте отдельно с мелкими.

● 너는 너대로 해. 나는 나대로 할 테니까.

Ты делай по-своему. А я буду по-своему.

● 그 나라에 가서 돈은 돈대로 들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어요.

Вроде бы и денег в этой стране поистратил, а мучился (в плохих условиях).

㉕ 썩지 않는 비닐과 플라스틱을 만들었다고 좋아했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처리할 수 없어 골치가 아프다. (Люди) были довольны тем, что создали не разлагающиеся полиэтилен и пластмассы, однако теперь не знают как от них избавиться, и это стало настоящей головной болью.

㉖ 왜냐하면 자연이 알아서 다 해주었기 때문이다. Потому что природа

сама всё делала (для людей).

알아서 하다 «делать по-своему; делать самому»

II 이제까지는 몰라서 그랬다고 치더라도 Пусть до сих пор считалось, что мы так поступали по незнанию, но

■ ~**(는/니)**다고 **치다/하다** «считать, что»

● 내가 잘못했다고 치자[하자]. 그렇다 하더라도 네가 그러면 되냐?

Будем считать, что я виноват. Пусть так, но тебе разве можно так поступать?

● 민호는 없다고 치고 우리 둘이서 다 하자.

Будем считать, что Минхо нет, и сделаем всё вдвоём.

● 한 사람이 두 개씩 먹는다고 치면 [하면] 전부 몇 개가 필요하지요?

Если считать, что каждый человек съедает по две штуки, сколько всего нужно?

✓ Также используется в форме «~**는/(으)ㄴ/(으)ㄹ** 셈 **치다**».

● 속는 셈 치고 내가 하자는(=하자고 하는) 대로 해 보세요.

Ладно, считайте, что я Вас обманываю, но всё равно попробуйте сделать так, как я Вам говорю.

● 그 돈은 잃어버린 셈 치세요.

Считайте, что Вы эти деньги потеряли.



대화

1.

엄마: 철수야, 너 설거지 좀 해 줄래? 지금 엄마가 나가야 되거든.

철수: 그렇지 않아도 머리로 식힐 겸 제가 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어디 가세요?

엄마: 지난 번에 민희 엄마가 언제 한번 오라고 하길래 그러겠다고 했더니 오늘 오란다.

철수: 걱정 마시고 잘 다녀오세요. 그런데 세제 어디 있어요?

엄마: 오늘은 기름기도 별로 없는데 세제 쓰지 말고 하지 그러니.

철수: 그러면 깨끗하게 되지 않잖아요?

엄마: 깨끗하게 되는 건 그거랑 아무 상관 없어. 엄마가 언제 설거지를 더럽게 하더냐? 강물을 오염시키는 것이 더 더럽지.

철수: 하긴 그래요. 흔히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세제를 사용하더라고요.



2.

장인: 김 서방 왔는가? 추운데 어서 들어오게.

민석: 오늘은 겨울 날씨치고 따뜻한 편인데요.



장인: 어제는 밖에 나갔다가 얼마나 춥던지 도로 집에 들어왔다네.

민석: 그러셨어요? 맞습니다. 어제는 정말 추웠지요. 집 사람이 시장에 갔는데 추워서 그런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장인: 그런데 사실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아주 따뜻한 거지. 옛날에 추웠던 건 말도 못해. 지금 생각하면 옛날에 어떻게 살았나 몰라.

민석: 그런데 왜 도시가 자꾸 따뜻해질까요? 따뜻해지는 게 한편으로 좋으면서도 실은 좀 불안하거든요.

장인: 공해 때문이라고 그러더구먼.

민석: 자꾸 이러다가 나중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기후가 되면 어떡하지요?

장인: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해야지. 사람들이 욕심도 좀 줄이고 불편한 것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공해가 줄어들 텐데... 안 그래.

단어 그렇지 않아도 и без того, и так 식히다 давать остыть, охлаждать 머리
리를 식히다 дать голове остыть, отдохнуть от мыслей 세제 моющее
средство, стиральный порошок 흔히 часто; обычно 습관적 привычный
습관적으로 по привычке 생각 없이 бездумно, механически 집사람 моя
жена 편 сторона; команда 한편으로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실은 на самом
деле 공해 загрязнени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기후 климат 어떡하다(=어떻
게 하다) что делать 조치 меры 조치(를) 취하다 принимать меры

□ 그렇지 않아도 머리로 식힐 겸 제가 하려던 참이었어요. Я и так
собирался, заодно чтобы и голову освежить.

■ ~(으)려 겸 (해서) «чтобы заодно и»

- | | |
|--|--|
| ● 운동도 할 겸 집까지 걸어가려고
요(=걸어가고 해요). | Собираюсь пойти до дома пеш-
ком, чтобы заодно и размяться. |
| ● 이번 여름에는 여행도 하고 친구
도 만날 겸 한국에 다녀왔어요. | Этим летом съездил в Корею,
чтобы заодно попутешествовать
и повидаться с другом. |
| ● 저는 언어 공부도 할 겸 해서 외
국 영화를 자주 봐요. | Я часто смотрю зарубежные
фильмы, чтобы заодно также
учить иностранный язык. |

■ ~려던 참이다 «как раз собирался»

Используется в различных формах, таких как: «~려는 참이다», «~(으)려 참
이다», «~ 참에» и т.д.

- | | |
|----------------------------------|--|
| ● 이제 점심을 먹으려던 참이었는데
요. | Я сейчас как раз собирался обе-
дать. |
| ● 지금 막 나가려는 참에 전화를 하
셨군요. | Как раз в тот момент, когда я со-
бирался уходить позвонили Вы. |
| ● 안 그래도 제가 그분한테 가 보려
던 참이었어요. | Я и без того собирался сходить к
этому человеку. |
| ●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참이에요? | Что Вы теперь собираетесь де-
лать дальше? |

단어 막¹ только что; сейчас же 막²(=마구) беспорядочно, как попало;

strongly 안 그래도(=그렇지 않아도) и без того, и так

2 민희 엄마가 언제 한번 오라고 하길래 그러겠다고(=그렇게 하겠다고) 했더니 오늘 오란다(=오라고 한다). Мама Минхи приглашала зайти как-нибудь в гости, я согласилась, так вот она сегодня меня зовёт.

■ ~길래 «как (какой, что, сколько)..., что ...»; «глядя на то, что»

(1) «Как (какой, что, сколько)..., что ...»;

●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그렇게 화를 내지요?	Что Вы ему сказали, что он так злится?
● 얼마나 예쁘길래 다들 그 아가씨 얘기만 하는 거예요?	Это ж какой надо быть красивой, что все только про эту девушку и говорят?

(2) «глядя на то, что».

● 사람들이 밥을 먹길래 저도 같이 먹었어요.	Гляжу – едят, ну и я вместе с ними поел.
● 문이 열려 있길래 그냥 들어갔어요.	Смотрю – дверь открыта, вот я и зашёл.

3 세제 쓰지 말고 하지 그러니? Мой посуду без порошка, зачем тебе порошок?

■ ~지 그러다 «сделали бы»; «надо было сделать, почему не сделали?»

Используется только в вопросительной форме в виде «~지 그래(요)?», «~지 그러니까/그러세요?» и т.д.

(1) В форме настоящего времени означает «сделали бы»;

● 웬만하면 내일 우리랑 같이 가지 그래?	Если тебе не сложно, пошёл бы завтра вместе с нами.
● 힘들어 보이는데 좀 쉬시지 그러세요?	Выглядите уставшим, отдохнули бы немного.

단어 웬만하다 обычный, терпимый, нормальный

(2) в форме прошедшего времени – «надо было сделать, почему не сделали?».

● 그럼 바로 도망을 치지 그랬어요?	Надо было тогда сразу убежать, почему не убежали?
● 서울에 왔으면 전화를 하지 그랬어?	Если приехал в Сеул, то надо было позвонить, почему не позвонил?

✓ В «~지 그러다» глагол «그러다» может опускаться.

● 그렇게 배가 고팠으면 먼저 밥을 먹지.	Раз так хотел есть, то ел бы без нас.
-------------------------	---------------------------------------

4 엄마가 언제 설거지를 더럽게 하더냐? Ты когда-нибудь видел, чтобы я грязно мыла посуду?

■ ~더냐/던(가요) Вопрос, побуждающий собеседника к воспоминаниям о факте, известном по опыту.

«~더냐», «~던(가)» – фамильярный стиль, «~던가요» – вежливый стиль.

● 오늘 박 사장님 만났어요. – 그분이 뭐라고 하시더냐?	– Сегодня встретил директора Пака. – Ну и что он говорит?
● 어제 민수한테 갔었어요. – 민수는 잘 있던?	– Вчера ходил к Минсу. – Как у него, всё нормально?
● 인호한테 문병 갔다 오는 길이에요. – 그 사람 좀 어떻던가요?	– Возвращаюсь из больницы, ходил навещать Инхо. – Как он там?
● 제가 이 말을 전에 안 했던가요?	Я раньше этого не рассказывал?

✓ «~던가» также используется, когда сказанное адресовано самому себе.

● 내가 찬미한테 돈을 갏았던가?	Вернул ли я деньги Чанми?
--------------------	---------------------------

5 하긴 그래요. Ну, в общем, да.

6 김 서방 왔는가? Зятёк, пришел?

서방 муж; после фамилии обращение к мужу дочери, мужу младшей сестры, мужу младшей сестры жены

■ 하계체 Полуфамильярный стиль

Стиль речи, в котором вышестоящий должен обращаться к нижестоящему в фамильярном стиле, но с долей некоторого почтением. Используется преподавателем по отношению к студентам, тестем или тещей по отношению к зятю, между пожилыми друзьями и т.д.

Таблица окончаний глаголов полуфамильярного стиля.

повествовательное вопросительное повелительное побудительное

~네	~나?, ~는/(으)는가?	~게	~세
가네	가나? 가는가?	가게	가세
춥네	춥나? 추운가?	-	-

● 그럼 나는 이만 가네.	Тогда я пойду (на этом).
● 자네 그러면 안 되네.	Тебе нельзя так поступать.
● 미국에는 언제 가나?	Когда едешь в Америку?
● 식사는 했는가?	Покушал?
● 이리 앉아서 내 말 좀 들어 보게.	Садись сюда и послушай, что я тебе скажу.
● 자네는 좀 조용히 하게.	А ты немножко помолчи.
● 우리 얘기 좀 하세.	Давай немного поговорим.
● 언제 술 한 잔 같이 하세.	Давай как-нибудь выпьем по стаканчику.

단어 자네 ты (полуфамильярный стиль)

7 추운데 어서 들어오게. Холодно, заходи скорее.

Повелительное наклонение полуфамильярного стиля.

8 오늘은 겨울 날씨 치고 따뜻한 편인데요. Для зимней погоды сегодня довольно тепло.

■ ~ 치고 «для (этого уровня)»; «среди»

Присоединяется к существительным.

(1) «Для (этого уровня)»;

● 그 병원은 시골 병원 치고 시설이 좋다.	Для деревенской больницы эта больница оснащена хорошо.
--------------------------	--

● 그 사람은 운동 선수치고는 그리 건강하지 않아요.	Для спортсмена здоровье у него не очень.
● 이 그림 어때요? -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치고는 훌륭합니다.	- Как вам эта картина? - Для картины, нарисованной учеником младших классов, замечательно.

(2) «среди».

●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 없습니다.	Среди тех, кто почитает родителей, плохих людей нет.
● 남자치고 여자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Есть среди мужчин такие, кто не любит женщин?

단어 시설 оборудование; оснащение 그리 так 효도 почтительность к родителям 효도(를) 하다 почитать родителей

㉠ 얼마나 춥던지 도로 집에 들어왔다네. Так было холодно, что зашёл обратно домой.

들어왔다네: более доброжелательный вариант повествовательной формы полуфамильярного стиля для «들어왔네».

■ ~던지 «то ли»

Окончание «~던지» образовано присоединением ретроспективного суффикса «~더~» к «~는/(으)니지» (см. стр. 233). В отличие от последнего, «~던지» также выражает воспоминания о прошлом событии.

● 그날은 그 사람이 기분이 좋았던 지 그냥 들어가라고 하던데요.	То ли в тот день у него было хорошее настроение, он нас просто пропустил.
--------------------------------------	---

✓ 얼마나/어찌나 ~던지 «так/настолько (было)..., что».

● 갈 때 얼마나 힘들었던지 거기 도착하자마자 바로 쓰러져 잤어요.	Так было тяжело в дороге, что, как только мы прибыли туда, я сразу же свалился и уснул.
● 어찌나 아프던지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Так было больно, что даже слёзы выступили.

10 추워서 그런지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то ли оттого что холодно, на улице, говорит, практически не было людей.

■ ~더랍니다/더래요 «Говорят(-ит), что ...»

Передача косвенной речью воспоминаний другого человека о факте, известном ему по опыту. Сокращение от «~더라고 합니다/더라고 해요».

В фамильярном стиле употребляется форма «~더란다/더래», что является сокращением от «~더라고 한다/더라고 해».

● 철수한테 어디 가냐고 하니까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Говорит, что спросил у Чольсу куда он идёт, а тот даже не отвечает.
● 인호가 할머니 댁에 갔더니 할머니가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Инхо говорит, что ходил к бабушке, и что бабушка сильно состарилась.
● 선미가 어제 기분이 좋지 않더라.	Говорят, что у Сонми вчера было плохое настроение.
● 3시에 갔는데도 손님이 많아서 자리가 없더라.	Говорит, что хоть и пришёл в 3 часа, мест не было из-за большого числа посетителей.

✓ «~더라는데» – сокращение от «~더라고 하는데».

● 그 사람이 김치도 잘 먹고 한국말도 잘하더라는대요.	Говорят, что он и кимчи хорошо ест и по-корейски хорошо говорит.
--------------------------------	--

11 옛날에 추웠던 건 말도 못해. Словами не передать, как раньше было холодно.

12 지금 생각하면 옛날에 어떻게 살았나(=살았는지) 몰라. Сейчас как подумаешь, то непонятно как раньше жили.

13 공해 때문이라고 그러더구먼. Говорят, это всё из-за загрязнения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 ~더구먼(요) Воспоминание и восклицание

Удивление или восклицание в момент воспоминания факта, осознанного в прошлом. Одинаковое значение с «~더군(요)».

● 어제 문수네 집에 갔는데 그 집 참 좋더구먼.

Вчера ходил домой к Мунсу, у них, оказывается, очень хорошая квартира.

● 어제 찬수하고 같이 일했는데 그 사람 일 못하더구먼.

Вчера поработал вместе с Чольсу, он, оказывается, плохо работает.

● 어제 가 보니까 사람들이 집에 다 갔더구먼요.

Прихожу вчера, а люди уже все ушли домой.

✓ «~(는)구먼(요)» – это изначальная форма окончания «~(는)군(요)». Окончание «~(는)구먼(요)» употребляется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 момент осознания факта, а окончание «~더구먼(요)» по прошествии времени после его осознания.

● 그 학생 한국말 참 잘하는구먼.

Как, оказывается, этот студент, хорошо говорит по-корейск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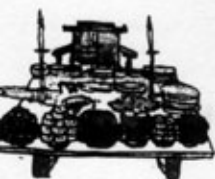
● 방이 참 따뜻하구먼.

Комната, оказывается, какая тёплая.

14 자꾸 이러다가 Если и дальше так будет продолжаться

15 불편한 것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공해가 줄어들 텐데... когда (люди) научатся терпеть неудобства, загрязнени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снизится.

16 안 그래? Не так ли?





익워 두세요!

마당이 꼭 손바닥만해요.

Двор точь-в-точь размером с ладонь.

넌 생각이 어린애만도 못하나?

У тебя что, уровень мышления даже ниже детского?

방에 누가 있는지 소리가 나요.

То ли от того что в комнате кто-то есть, оттуда доносятся звуки.

그 사람이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Этот человек так хорошо говорит по-корейски, что я решил, что он кореец.

문은 닫아 놓고 창문을 열어 놓으세요.

Закройте, пожалуйста, дверь, а окно откройте.

돈은 돈대로 들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어요.

Вроде бы и денег поистратил, а мучился (в плохих условиях).

운동도 할 겸 집까지 걸어가려고요.

Собираюсь пойти до дома пешком, чтобы заодно и размяться.

안 그래도 전화하려던 참이었어요.

Я и без того собирался позвонить.

언제 한번 오라고 하길래 그러겠다고 했더니 오늘 오란다.

(Он) приглашал зайти как-нибудь, (я) согласился, так вот (он) сегодня меня зовёт.

웬만하면 내일 우리랑 같이 가지 그래?

Если тебе не сложно, пошёл бы завтра вместе с нами.

그 병원은 시골 병원 치고 시설이 좋았다.

Для деревенской больницы эта больница оснащена хорошо.

그거 배고플 때 주니까 모두들 잘 먹더라요.

Говорит, что дал им это, когда они были голодные, так все ели хорошо.

단어 마당 двор



Как вы думаете, что будет, если мы бездумно будем выливать в кухонную раковину остатки прохладительных напитков?

Пищевые отходы, попадая в землю легко перегнивают, однако если же те же самые пищевые отходы попадают в речную воду, происходит серьёзное загрязнение. Если вылить в реку 150 мл. молока, то на его естественную переработку потребуется в 20 700 раз 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воды, то есть, для очистки от этого количества молока природе потребуется 3,15 тонн чистой речной воды.

Для естественной переработки чашки кофе потребуется в 20 100 раз 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воды, а именно 3,01 тонн; апельсинового сока – в 12 500 раз (1,875 тонн); напитка «Спрайт» – в 10 300 раз (1,545 тонн); растительного масла – в 27 000 раз (4,05 тонн); пива – в 14 300 раз (2,14 тонн).

Если мы будем производить мусор сверх того количества, которое способно переработать природа, мы рано или поздно вынуждены будем поплатиться за это. Раньше мы могли пить простую воду из под крана, теперь же в большинстве городов приходится её фильтровать. Может случиться и так, что спустя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невозможно будет пить и фильтрованную воду.

Выход из этой ситуации очень прост – использовать как можно меньше мыла и моющих средств, сокращать объем пищевых отходов, экономнее использовать электроэнергию. Этот простой способ может дать человеку путь к дальнейшей жизни в гармонии с природой.



한자고식

매양 매 каждый 	멀 원 далёкий 	가까울 근 близкий 	곳 처 место 	이제 금 теперь 	일 업 дело 	지을 작 создавать 
매울 신 острый (вкус) 	일만 만 десять тысяч 	쓸 고 горький 	있을 재 находиться 	온전 전 весь 	반 반 половина 	주인 주 хозяин 
가벼울 경 лёгкий 	무거울 중 тяжёлый 	봄 춘 весна 	여름 하 лето 	가을 추 осень 	겨울 동 зима 	갈 행 ходить; делать 

매일(毎日) 근처(近處) 식사(食事) 내년(來年) 금년(今年)

고사성어

자업자득(自業自得)

Заварил кашу – теперь расхлёбывай. Сам натворил – сам получай результат.

작심삼일(作心三日)

О слабой воле или нетвёрдом решении. Принятое решение не держится и трёх дней.

천신만고(千辛萬苦)

Неисчислимые страдания. Тысяча горечей, десять тысяч мучений.

보충어휘

신랑 жених	삶다 варить
흑인 человек чёрной расы	카메라 видео-; фотокамера
관광객 турист	넥타이 галстук
신입생 учащийся нового набора, первокурсник	에어컨 кондиционер
기사 инженер; водитель	치약 зубная паста
외교관 дипломат	칫솔 зубная щетка
저자 автор	승용차 легковой автомобиль
졸업생 выпускник	바이올린 скрипка
유학생 студент, обучающийся за границей	자가용 частный (автомобиль, самолёт и т.д.)
교포 зарубежны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서랍 ящик (стола, комода и т.д.)
볶다 жарить (перемешивая)	손잡이 ручка, рукоятка
굽다 печь; жарить (переворачивая)	팬티 трусы
끓다 кипеть	선풍기 вентилятор
	빗 расчёска

속담

-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Лебедь, Рак и Щука. Когда гребцов много, лодка лезет на гору.
- 새 발의 피
 Это всё мелочи. Кровь от птичьей лапки.
-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Баре ссорятся – у холопов чубы трещат. В драке китов лопаются спинки креветок.
- 서울 가서 김 서방 찾는다.
 На деревню дедушке. Искать в Сеуле человека по фамилии Ким.
- 단어** 사공 гребец 고래 кит 서방 господин

연습문제

영희가 무슨 일이 있는지 오늘 안 왔어요.

연습문제 101. <보기>와 같이 고치십시오.

<보기> 밖에 누가 **왔나 봐요** 소리가 나요.

→ 밖에 누가 **왔는지** 소리가 나요.

1. 수업이 **끝났나 보다**.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온다. 2. 기름이 **다했나 봐요**. 차가 멈추려고 하는데요. 3. 우리 말을 **알아듣나 봐요**. 고개를 끄덕이네요. 4. 누가 라디오를 **틀었나 봐요**. 되게 시끄러워요. 5. 민수가 너무 **힘들었나 봐요**. 들어오자마자 쓰러져 자고 있어요. 6. 아이들이 배가 **고팠나 봐요**. 엄청나게 먹는군요.

단어 들려오다 доноситься (о звуке) 다하다 заканчиваться; делать всё возможное 끄덕이다 кивать (головой) 틀다 крутить, закручивать; включать (радио); заводить (часы)

우리가 간들 아주 가는 것도 아닌데 울지 마세요.

연습문제 102. <보기>와 같이 고치십시오.

<보기> 그 사람이 돈이 **있더라도** 얼마나 있겠어요?

→ 그 사람이 돈이 **있든들** 얼마나 있겠어요?

1. 그 아줌마가 도망을 **가더라도** 얼마나 멀리 가겠어요? 2. 개들이 일을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어요? 3. 그 사람이 **오더라도**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4. 지금 약을 **먹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5. 내가 불평을 **하더라도** 누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나요?

창문을 열어 놓으면 모기가 들어오니깐 닫아 놓으세요.
4시에 출발할 테니까 지금 잠을 좀 자 두세요.

연습문제 103. <보기>와 같이 고치십시오.

<보기> 문을 여세요 그리고 그대로 두세요.

→ 문을 열어 놓으세요.

1. 빨래를 물에 담그세요. 그리고 30분 동안 그대로 두세요. 2. 그릇들을 다 뒤집으세요. 그리고 그대로 두세요. 3. 그거 책상 위에 얹으세요. 그리고 그대로 두세요. 4. 이 칼들을 잘 가세요. 그리고 그대로 두세요. 5. 공책에다 자신의 생각을 쓰세요. 그리고 그대로 두세요.

단어 담그다 погружать в жидкость; замачивать; настаивать; засолить 뒤집다 переворачивать; выворачивать наизнанку 얹다 положить (на что-л.) 갈다 точить

그 나라에 가서 돈은 돈대로 들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어요.

연습문제 104. <보기>와 같이 고치십시오.

<보기> 돈이 들었는데 고생도 했어요.

→ 돈은 돈대로 들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어요.

1. 힘이 들었는데 일도 잘 안 됐어요. 2. 부모님은 걱정이 많은데 자식들도 불평이 많아요. 3. 회사에 일이 많은데 집에도 문제가 많아요. 4. 차가 부서졌는데 욕도 먹었어요. 5. 음식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맛도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치자. 그렇다 하더라도 네가 그러면 되냐?
민호는 없다고 치고 우리 둘이서 다 하자.

연습문제 105. <보기>와 같이 고치십시오.

<보기> 민호는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다 하자.

→ 민호는 없다고 치고 우리가 다 하자.

1. 신영이는 내일 안 와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세요.
2. 이 일을 오늘 다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일 할 일이 없네요.
3. 어려운 사람을 도왔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돈은 잊어버리는 것이 좋겠어요.
4. 한 개에 500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전부 150개니까 75000원쯤 들겠어요.
5. 내일 한 30명 올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밥을 준비해야겠어요.

운동도 할 겸 집까지 걸어가려고요.

연습문제 106. <보기>와 같이 고치십시오.

<보기>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친구도 만났습니다.

→ 친구도 만날 겸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1. 내일 모임에 갈게. 거기서 네 얼굴도 볼 거야.
2. 물 가지러 갔다 올게요. 거기서 전화도 할 거예요.
3. 개를 데리고 나왔어요. 산책도 할 거예요.
4. 철수는 아저씨 댁에 갔어요. 거기서 일도 도와드릴 거예요.
5. 저는 미국 신문을 봅니다. 그러면서 영어 공부도 합니다.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그렇게 화를 내지요?

사람들이 밥을 먹길래 저도 같이 먹었어요.

연습문제 107. <보기>와 같이 고치십시오.

<보기> 너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했어? 왜 저렇게 기분이 나쁘냐?

→ 너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저렇게 기분이 나쁘냐?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어갔어요.

→ 문이 열려 있길래 그냥 들어갔어요.

1. 개가 영어를 얼마나 잘하지요? 왜 다들 개가 미국 사람인 줄 알까요?
2. 아까 너 뭘 먹었나? 왜 배가 아프니? 3. 그분이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들어갔어요. 4. 옷에 뭐가 묻었어요? 왜 자꾸 털어요? 5. 개가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지요. 6. 누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그렇게 좋아서 웃어요? 7. 너무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다가 왔어요.

단어 털다 стряхивать; вытряхивать; выбивать

웬만하면 내일 우리랑 같이 가지 그래?

그럼 바로 도망을 치지 그랬어요?

연습문제 108 <보기>와 같이 고치십시오.

<보기> 좀 쉬세요 그러면 좋을 텐데요.

→ 좀 쉬시지 그러세요?

좀 쉬셨어야지요(=쉬셨어야 했어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요.

→ 좀 쉬시지 그랬어요?

1. 병원에 한번 가 보세요 그러면 좋을 텐데요. 2. 저한테 미리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요. 3. 이것도 다 먹어라 그러면 좋을 텐데. 4. 아무 말도 하지 말았어야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5. 그때 바로 경찰에 신고하셨어야지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요. 6. 오늘은 일찍 자라. 그러면 좋을 텐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더냐?

민수는 잘 있던?

연습문제 109 <보기>와 같이 고치십시오.

<보기> 그 사람 뭘 하고 있어요? 보신 대로 말씀해 보세요.

→ 그 사람 뭘 하고 있던가요?

1. 가족들은 잘 있어요? 보신 대로 말씀해 보세요. 2. 한국은 날씨가 어때요? 보신 대로 말씀해 보세요. 3. 그 사람 술 잘 마셔요? 보신 대로 말씀해 보세요. 4. 그 학생들 지금 자요? 보신 대로 말씀해 보세요. 5. 한국 음식이 맛있어요? 느낀 대로 말씀해 보세요. 6. 그 일이 힘들어요? 느낀 대로 말해 봐. 7. 그분이 작품을 쓰게 된 동기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들으신 대로 말씀해 보세요.

단어 동기 повод, стимул, толчок

그럼 나는 이만 가네.

미국에는 언제 가나?

식사는 했는가?

이리 앉아서 내 말 좀 들어 보게.

우리 얘기 좀 하세.

연습문제 110 Измените стиль предложений на полужамецкий.

<보기> 그러면 안 됩니다.

→ 그러면 안 되네.

1. 너 이리 와 봐. 2. 언제 오셨어요? 3. 내일 같이 갑시다. 4. 저는 어제 왔어요. 5. 저는 그 사람들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요. 6. 한국어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지금부터 사건의 배경을 종합적으로 살펴봅시다. 8. 그 꽃에서는 아주 짙은 향기가 납니다. 9. 수화기를 좀더 귀에 가까이 대고 들어 보세요. 10. 우주가 생겨난 시기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11. 저는 고급 한국어를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더구나 저는 그만큼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단어 태도 манеры; позиция, отношение 특징 особенность, характерный признак 배경 фон, задний план; поддержка; подоплёка 종합적 комбинированный, комплексный 종합적으로 в комплексе 질다 густой;

яркий; сочный 향기 аромат 대다 дотрагиваться, прикасаться;
 прикладывать 우주 космос, вселенная 시기 период, время 관점 точка
 зрения, аспект 급 класс; степень; уровень 더구나 более того 그만큼
 в такой степени

갈 때 얼마나 힘들었던지 거기 도착하자마자
 바로 쓰러져 잤어요.

연습문제 111. <보기>와 같이 고치십시오.

<보기> 너무 아파서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 어쩌나 아프던지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1. 너무 기빠서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 나갔어요. 2. 그 사람 너무 힘이 세
 서 바위도 들 것 같더라고요. 3. 그분은 너무 정이 많으셔서 오는 사람마
 다 밥을 사 주시던데요. 4. 어젯밤에 너무 더워서 잠을 못 잤어요. 5. 야
 채가 너무 신선해서 금방 다 팔렸어요. 6. 너무 세게 붙어 있어서 떼 수
 가 없더라고요.

단어 바위 большой камень, валун 정 теплота; привязанность; дружеское
 чувство 신선하다 свежий 떼다 отрывать; отделять

철수한테 어디 가냐고 하니까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선미가 어제 기분이 좋지 않더라.

연습문제 112. <보기>와 같이 고치십시오.

<보기> «손님이 많아서 자리가 없더라고요[없던데요].»라고 합니다.

→ 손님이 많아서 자리가 없더라고요.

1. «거기 가니까 저 이외에는 다 대학생들이더라고요.»라고 해요. 2. «그
 사람들이 자기들 속마음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더라.»라고 합니다. 3. «너
 무 늦게 자면 안 되겠는데요.»라고 한다. 4. «끌고 다니는 가방이 하나

있으면 좋겠던데.»라고 하는데요. 5. «나를 포함해서 모두 37명이 신청했
더라고.»라고 해. 6. «가 보니까 할머니가 그동안 정원을 가꾸고 채소를
심어 놓으셨던데요.»라고 해요. 7. «개 엄마는 물건을 참 아끼시는데 아
버지는 엄마보다 더하시더라.»라고 합니다.

단어 이외 кроме; помимо 나타내다 проявлять, выражать 끌다 тянуть,
тащить; притягивать 포함하다 содержать, включать 가꾸다 выращивать,
ухаживать; следить (напр. за собой) 더하다 добавлять, усиливать; ещё более

어제 문수네 집에 갔는데 그 집 참 좋더구먼요.

연습문제 113 <보기>와 같이 고치십시오.

<보기> (제가 봤는데) 그 사람 일 잘 못해요.

→ 그 사람 일 잘 못하더구먼요.

1. (제가 가 봤는데) 그 방에 지금 아무도 없어요. 2. (내가 들으니까) 그
사람은 잘못이 없어. 3. (신문을 보니까)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서 각 부
의 장관들이 거의 다 바뀌었어요. 4. (제가 알아보니까) 그거 그렇게 어
렵지 않다고 해요. 5. (어디서 들었는데) 그건 뿌리는 버리고 줄기만 먹
어야 된다고 해. 6. (제가 봤는데) 그 사람 이성을 잃었어요.

단어 외교부 министерство внешних сношений 비롯하다 начинать 비롯해
(서) начиная с ... 각 каждый 부 отдел (в учреждении); министерство;
часть 줄기 стебель 이성 разум

